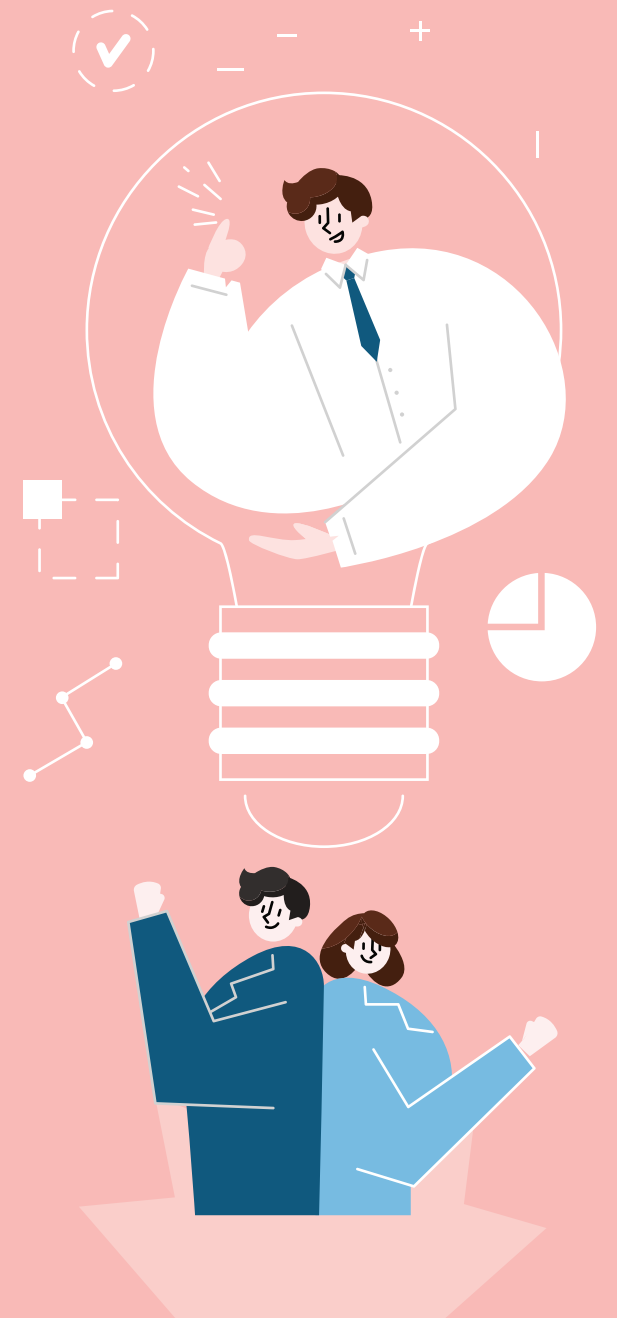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진로선택과목, 학생은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고, 대학은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까?

2021학년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첫해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다. 대학도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이 대입과 무관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을 것이냐, 수능시험에 맞춘 과목을 들을 것이냐 하는 「학종-수능 선택 딜레마」,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을 것이냐, 학생부 교과 성적(내신 성적)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것이냐 하는 「학종-내신 선택 딜레마」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런 시의성을 고려하여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가 공동으로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의 대입전형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특히 진로선택과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대입전형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실제 확대되고 있는가?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진로, 흥미에 따라 실제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는가? 진로선택과목의 개설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구성 비율은 어떠한가? 학년에 따라 과목별 위계 및 난이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목을 편성하고 있는가? 개설 과목과 실제 배우는 내용이 동일한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대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의 선택 과목 이력을 평가에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가? 그 영향력은? 과목 간 위계(난이도 및 수준)와 전문교과 이수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14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문항의 설문조사, 권역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20개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대학에서 대입 전형을 실제 운영하는 책임급 입학사정관 20개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교육과정 및 대입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고등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진로선택과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은 학생의 선택 과목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되, 학생의 입시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자칫 변별력 문제로 진로선택과목을 대입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면 진로선택과목이 위축되고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의 정량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에 모두 활용하되, 학생의 입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로선택과목의 구체적인 대입전형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본문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바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더불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재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 중이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의 강화, 학점제형 대입제도, 특히 학생의 과목 선택을 정성평가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학점제형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집에서는 고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학 입학관계자를 돕고자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방안과 학생부교과전형의 정량평가 방안을 대안별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보고서 요약본 성격의 본 소책자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세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의 대입전형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대학 입학관계자나 교사, 학생과 학부모라면 전체 연구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전체 연구보고서와 소책자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작하여 공동연구에 참여한 5개 대학의 입학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과 대입 준비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학의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안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0년 1월

연구책임자	경희대	임진택
공동연구진	건국대	이정림 김유겸
	경희대	공자원
	연세대	박정선 한정호
	중앙대	차정민 임태원
	한국외대	이석록 김창민

Contents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인사말	02
I. 연구 개요	08
II. 진로선택과목의 대입평가 활용 방안	12
1. 진로선택과목의 정성평가 활용 방안	12
2. 진로선택과목의 정량평가 활용 방안	23
III. 연구 요약 및 함의	46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I.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이수과목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일반·진로)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진로선택과목이 신설되었다. 진로선택과목은 성적 처리방식도 석차등급 없이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한 성취도(A-B-C)가 제공된다. 더욱이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의 선택 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대입 전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전형을 운영해야 할 대학이나 수험 준비를 해야 할 고등학교나 학생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진로선택과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입전형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147개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고교학점제 연구(9)·선도(11)학교 교사 대상 면접조사, 20개교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델파이조사,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FGI)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설문조사 대상은 2019학년도 고교학점제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243개 고등학교와 이들 학교와 같은 지역에 소재하지만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43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486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설문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설문조사 URL 포함)한 뒤 인터넷으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477개교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들 학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03개교가 설문 응답(응답률 21.5%)하였다. 본 설문의 문항이 많고 응답 내용도 어려워 응답률이 낮았다는 판단 아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설문 대상 학교를 추가하여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2차 설문 조사 결과 44개교의 추가 응답을 받아, 최종적으로 147개교가 설문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교과 개설 및 신청 현황, >희망계열별 적정 이수 과목 수, >진로 선택 과목의 적절성 평가,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후 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20개 고교(연구학교 9개, 선도학교 11개)를 선정하여 해당 고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고교는 수도권 10개, 비수도권 10개로 지역을 안배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대학별 연구진 2인이 해당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조사에 활용한 공통 면담 질문지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한 심층 질문,



>대학 평가 활용에 대한 요구,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

델파이조사

델파이조사는 전국 주요 20개 대학의 대표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특히 진로선택 과목의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한정하였고, 이 외에 대학 소재지(수도권/지역)와 설립유형(국립/공립/사립)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문항 관련 5점 척도와 주관식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관식 응답은 제외하고 5점 척도화된 내용만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문가별로 독립적인 1차 의견을 토대로 2차에서 본인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2차 합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의견을 도출하였다. 조사지는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였으며, 회수율은 2차례 모두 100%였다.

델파이조사 항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및 대입전형 변화, >학생부위주전형 정량평가 방식의 적합성, >학생부위주전형 과목 반영의 적합성,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의 적합성, >진로선택과목의 교과군과 모집단위 범주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심층면접(FGI)

진로선택 과목의 운영 및 대입전형 활용에 관한 전문가 심층면접(FGI) 대상은 고등학교 교사, 교육청 장학사, 대학의 입학사정관 등 교육과정 및 대입전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심층면접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탐색 FGI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상 전문가가는 고등학교 교사 2명, 교육청 장학사 2명, 대학의 입학사정관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시작단계이므로 실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등학교 그룹의 비율을 더 높게 두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고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순응도, >고교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진로선택 과목의 개설 및 다양화, >진로선택 과목의 대입전형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차 심층면접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사 3명, 대학 입학사정관 2명, 교육부 연구관 1명으로 구성되었다. 2차 심층면접은 주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에 진행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1·2차 심층면접 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 현장에서의 진로선택과목 운영 현황과의 의, >고교 현장에서의 진로선택과목 대입 반영에 대한 해석 및 영향 예측, >진로선택과목의 대입전형 활용에 대한 제언 항목 등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II. 진로선택과목의 대입평가 활용 방안

1. 진로선택과목의 정성평가 활용 방안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학 입시 과제
- 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활용 방법

2. 진로선택과목의 정량평가 활용 방안

- 가. 학업성적을 활용한 성적 산출 방안
- 나. 교과영역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II. 진로선택과목의 대입평가 활용 방안

01 진로선택과목의 정성평가 활용 방안

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학이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데는 74.8%가 동의하였다. 특히 사회와 과학교과외의 경우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의견이 각각 4.13점과 4.11점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양교과가 3.8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시범사업 교사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교육과정 개설 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아예 배제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높은 수요를 보인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후 교과목 선택권 확대(N=147)

문항	평균	표준편차
국어 교과 선택	3.56	0.97
수학 교과 선택	3.68	1.00
영어 교과 선택	3.60	0.98
사회 교과 선택	4.13	0.83
과학 교과 선택	4.11	0.83
체육 교과 선택	3.20	1.06
예술 교과 선택	3.43	1.03
기술·가정 교과 선택	3.20	1.02
제2외국어 교과 선택	3.44	1.01
교양 교과 선택	3.88	0.95
전체적인 과목 선택	3.89	0.79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고교와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대체로 학교의 교육과정 개설과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학생의 선택과목이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의 다양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은 학교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는 진로선택과목을 확대하거나 심화과목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수능위주로 준비하는 학교는 수능 반영과목 위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진로선택과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학교의 환경에 따라 대입전형 대응 전략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크게 변화 없는 방식으로 인문, 자연계열로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이원화하는 방식도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가 교육과정 지정과목 편성 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융합교육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입평가 반영 여부(4.5점)와 수능 출제 여부(4.42점), 과목의 위계성(4.40점) 등 진학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과목 편성 시 학생의 선호도(4.48점), 과목의 위계성(4.32점), 교원 수급(4.30점) 순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지정 과목은 학교가 대입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요구하는데 반해,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의 제반 환경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과목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인 대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대입평가 반영이나 수능 출제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반해, 선택 과목은 학교의 현실적 상황이나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지정 과목과 자율선택 과목 모두 과목의 위계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의 선택과목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개설 과목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교육과정 운영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 9등급 상대평가제로 여전히 기재되고 있어 미개설 과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개설 과목 발생 사유는 '신청인원 부족 문제(91.8%)'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교사 부족(51.7%)'이었다. 평균적으로 14명 이하를 폐강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미개설 과목 발생 시 학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81.0%)', '온라인 공동교육과정(55.1%)' 운영으로 보완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의 약 76%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전문교과 I 을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경우 약 90%가 전문교과 I 과목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반면, 시범사업 미참여 학교의 경우 약 62%만이 전문교과 I 과목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개설 과목 수나 자율선택 과목 수의 경우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I 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간 환경 및 노력 여하에 따라 고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시범사업 등과 같은 교과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많은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입에서 정성평가 시 학교의 환경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시 오히려 학교 효과에 의한 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교육과정 편제 현황 유의성 검정: 고교학점제 시범사업 참여 유형별 p-값: *<0.05, **<0.01

구분	편제 과목 수	신규개설 과목 수	미개설 과목 수	실제개설 과목 수	학교지정 과목 수	자율선택 과목 수
일반선택과목	0.0951	0.7298	0.2781	0.0336*	0.2863	0.0029**
진로선택과목	0.043*	0.6187	0.2223	0.0062**	0.3845	0.0029**
전문교과 I	0.0000**	0.1426	0.1631	0.0000**	0.4881	0.0000**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대학 입시 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과목은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공통과목은 기초소양함양을 목표로 하며, 선택과목은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교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대학은 고교 운영 실태를 파악해 얼마나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대입에서 진로선택과목을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Q1.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가?
- Q2. 실제 학생들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는가?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 개설된 과목과 실제 개설한 과목이 동일한가?
- Q3.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개설과목 수, 구성 비율, 이수 단위는 어떠한가?
- Q4. 소수단위 과목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가? 진로선택과목은 주로 몇 학년에 개설되고 있는가?
- Q5. 대입에 활용되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진로선택과목은 몇 과목 정도인가?
- Q6. 특정 과목을 학년제 또는 학기제 중 어떤 방식으로 개설하는가?
- Q7.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교양 중 어떤 과목을 주로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하는가?
- Q8. 진로선택과목을 학생의 흥미, 진로, 심화(전문교과)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설하는가?
- Q9. 선택 과목 이수는 누가 지도하는가? 등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 운영 실태에 대한 궁금증과 아울러 대입전형 평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볼 수 있다.

- Q1.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왜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가?
- Q2. 학교가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한 학생과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수강한 학생을 다르게 볼 것인가? 학교 지정과목이나 학생 선택과목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성취 그대로를 평가에 활용하면 안 되는가?
- Q3. 만약 학교 지정과목과 학생 선택과목을 다르게 반영해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대학이 학생이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구분할 수 있는가?
- Q4.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과목을 평가에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Q5. 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등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목 선택 경로와 교과목별 위계, 전공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학생의 학습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학생 선택 과목의 다양화 과정에서 심화과목 개설 경쟁으로 기초학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기 심층면접(FGI)에서 “고교는 기존 대부분 교사 수급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다수 과목은 지정하고, 일부 탐구과목과 제2외국어에 제한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해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탐구과목, 생활·교양 등 보통교과 내에서 선택권을 전면 부여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가 있으며, “과목별 이수자 수를 세밀히 살피면 학교에서 일괄 개설한 과목인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대입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서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학종-수능 선택 딜레마’, ‘학종-내신 선택 딜레마’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지원 학교(계열)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능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응시인원이 많고 위계(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생부종합이나 수능이냐에 따라 이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학종-수능 선택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예컨대 공학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전공적합성을 고려할 때 물리학I를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나, 수능성적만 고려한다면 과학탐구과목 중 응시자가 많은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학종을 고려하면 물리학II를, 수능을 고려하면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

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지원 학과(계열)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생부 교과(내신)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수강인원이 많고 위계(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생부종합이나 학생부교과냐에 따라 이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학종-내신 선택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 활용 방법



1) 진로선택과목의 정성평가 활용 방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진로선택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2018년 8월 교육부는 진로선택과목의 대입 활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진로선택과목은 대학에게 석차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의 성취도(A-B-C)로 제공하되 원점수, 평균, 이수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도 진로선택과목은 공통·일반선택과 분리하여 예술·체육처럼 별도로 두기로 하였다.

진로선택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과목명이나 원점수, 평균, 성취도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제공되어 평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기존 평가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지원학과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등을 평가해 왔다. 물론 대학에게는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기존보다 더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개인의 역량을 보다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학교는 탐구과목, 제2외국어 일부 과목에서만 제한적으로 과목 선택권을 부여했다면,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보통교과 내 국어, 수학, 영어 등 기초 교과뿐만 아니라 탐구 전 과목, 생활·교양, 예술·체육, 심지어 심화과목(전문교과) 까지 개설하고 그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건국대 외 5개 대학 공동연구(2017년)에서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평가요소 4개 항목이 진로선택과목의 평가요소로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성을 제외한 3개 항목(즉,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은 각각 약 88%(4.35점), 77%(4.02)의 응답이 평가요소로서 적절하다고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업역량도 약 76%(3.84점)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성은 약 23%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역량이 전공적합성이나 발전가능성에 비해 평가요소로서 적절성이 낮게 응답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 평정 체계의 특성상 학업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변별이 어렵다는 판단에, 진로선택과목의 세특 기록 및 이

수 과목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진로선택과목의 평가 요소로 더 적합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 정성평가 시에는 진로선택과목과 지원 전공(계열)과의 관련성, 세특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난 전공 또는 학업 관련 관심과 노력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전공(계열) 관련 전문교과 I 과목 이수 항목은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입을 목표로 한 무분별한 전문교과 I 과목 개설 지양을 위한 목적과 함께 학생의 진로결정 시기를 강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석차등급이 주어지지 않지만 학생부에 주어진 나머지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단위, 이수자 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다각도로 살피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즉, 정성평가의 경우 정량평가와 같은 획일적 공식에 따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성취 수준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식은 유지하면서 진로선택과목이 학생 선택에 따른 과목 이수 경로를 살피고 과목의 난이도나 심화 학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는 정성평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도 진로선택과목은 정성평가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개별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참고하여 학생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 여부 및 이수 단위 수를 평가에 활용할 때 교사 수급 문제 등으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해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표를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진로선택과목의 대입 평가 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대입에 반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목 선택이 줄어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은 수능 문제풀이식으로 파행 운영될 우려가 있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대입에서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진로선택과목 이수과목 수, 과목별 위계 및 심화과목(전문교과) 평가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 '진로선택과목의 이수과정, 과목별 난이도 및 위계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4.2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위주 정성평가 방식(3.75점)' 과 '과목별 각종 학업성취 정량적 자료 활용 방식(3.6점)', '공통/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에 따른 평가, 진로선택과목은 전공관련 과목 이수 여부 중심 평가 방식(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 진로선택과목의 학생 선택에 따른 과목 이수 경로를 살피고 과목의 난이도나 심화 학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성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생 진로에 대한 방향과 목표, 의지, 성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진로선택과목 이수 현황을 통해 학생 개인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진로선택과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칫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이수가 제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전문교과나 심화교과를 개설하는 보여주기식 경쟁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표 3.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 : 대학 입학사정관

구분	반영 방법	평균점수
방안 1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단위 등을 활용	3.60점
방안 2	공통/일반선택 과목은 등급에 따른 평가,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보다 전공관련 과목이수 여부 중심 평가	3.35점
방안 3	진로선택과목 이수 과목수,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위계),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	4.20점
방안 4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3.75점

원론적으로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이는 말 그대로 원론적인 주장일 뿐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본격화된 이후 많은 대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등을 강조해 왔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는 심화과목 편성을 통해 학교 또는 학생의 경쟁력을 증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심화과목에 대한 개설 요구는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확대되어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설문조사 결과 진로선택과목으로 전문교과를 약 77%가 제공하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시범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학교(91%)와 학교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전문교과를 더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교과의 이수 여부나 진로선택과목 수강과목 수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전공(계열) 관련 전문교과 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과 관계없이 단순히 대입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전문교과 I 과목을 개설하는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선택과목과 지원 전공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높이 요구하면, "고교생들의 진로가 너무 빨리 결정되어야 할 것 같고 고정되어 버릴 것 같은 우려가 있다"라며 지나치게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심층

면접(FGI)에도 전문교과가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무관하게 심화·전문교과가 다수 개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교과를 이수할 만한 수준의 아이들이 소수라는 점, 전문교과의 이름만 빌려서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보통교과 수준의 과목을 가르친다는 점, 전문교과 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의 입장에서 선택 과목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는 양적으로 많은 과목을 이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 과목 간 위계에 맞도록 이수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일반선택과목 또는 진로선택과목을 많이 이수했다는 점이 대입 평가에 특별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학업역량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학업역량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것에 보통 이상의 동의를 보였다. 특히 진로선택과목이 전문교과 I 을 포함한 경우(평균=3.5점)가 포함하지 않을 경우(평균=3.29점)보다 더 높은 응답 점수를 보여 전문교과 I 과목과 학생의 학업역량이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개설 과목과 실제 배우는 내용이 동일한가, 교과별 위계 없이 진행되어 교과 내용의 부풀리기가 이루어진다면 심화학습(과목의 수준 및 난이도)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선택 과목이 대입평가나 학업역량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그 정도가 보통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진로선택과목을 선호할 것이라는 인식에는 대체로 동의(평균=3.84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선택과목보다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선호할 것이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74.2%인데 반해, 동의하지 않는 비중은 10.2%에 불과해 압도적인 다수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로선택과목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표 4. (일반·진로)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인식 (N=147)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일반선택과목을 많이 수강 할수록 대입 평가에 유리할 것이다.	3.03	0.94
진로선택과목을 많이 수강 할수록 대입 평가에 유리할 것이다.	3.30	1.02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일반선택과목보다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선호할 것이다.	3.29	1.06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일반선택과목보다 진로선택과목(전문교과 I 포함) 이수를 선호할 것이다.	3.50	1.04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선택과목보다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선호할 것이다.	3.84	0.93
수능(인문)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선택과목보다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선호할 것이다.	2.59	1.13
수능(자연)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선택과목보다 진로선택과목 이수를 선호할 것이다.	2.84	1.26

진로선택과목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내신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지원 학과(계열)와 관련한 심화과목이나 전문교과 과목에 도전한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물론 과목 이수 자체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택과목의 성취 수준과 내용, 수강 신청 이유 및 배경, 어려운 과목 도전, 고교 내 교육 관련 활동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면접을 통해 학생이 선택한 과목 성취와 수강 과정의 의미, 과목 선택의 동기, 활동 과정,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대입에서는 학생이 지원 학과(계열) 관련 과목을 선택한 배경, 학교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학생의 선택 과목, 심화(전문교과) 등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제표 등 학교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진로희망 계열별 진로선택과목 이수 필요성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전공별로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설문조사 결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모두의 적정 이수 과목 수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의학계열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선택과목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자연·공학·의학 계열보다 국어 교과를 한 과목 정도 더 이수, 자연·공학·의학 계열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수학 교과에서 한 과목 정도 더 이수, 영어 교과는 계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회 교과는 인문·사회 계열이, 과학 교과는 자연·공학·의학 계열이 두 과목 내지 세 과목 정도 더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의 적정 이수 과목 수는 국어 교과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이 자연·공학·의학 계열보다 대개 한 과목 정도 더 이수, 수학 교과의 경우 자연·공학·의학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보다 한 과목 정도 더 이수, 영어 교과의 경우 계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회 교과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이, 과학 교과의 경우 자연·공학·의학 계열이 대개 한 두 과목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과 예술 교과의 경우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모두 두 세과목 정도 이수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문이과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대입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전공별로 이수해야 할 진로선택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도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학과(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학과 관련 과목 성취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 대학이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때 어떤 범주로 판단하느냐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학생과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공계열에 따른 이수과목 평가 시 계열을 너무 세분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분류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 희망 계열별 진로선택과목의 이수 필요성

(단위: %)

구분	진로선택과목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국어	실용 국어	59.2	43.5	34.7	31.3	29.3
	심화 국어	89.8	52.4	8.2	8.8	14.3
	고전 읽기	94.6	46.3	8.2	7.5	13.6
수학	실용 수학	32.0	34.0	39.5	29.9	22.4
	기하	1.4	3.4	76.2	88.4	57.8
	경제 수학	16.3	83.0	31.3	19.7	9.5
영어	수학과제 탐구	10.9	28.6	85.7	73.5	54.4
	실용 영어	67.3	55.1	46.3	45.6	44.2
	영어권 문화	82.3	66.0	12.9	12.2	15.6
사회	진로 영어	65.3	52.4	25.9	25.2	28.6
	영미 문학 읽기	85.7	45.6	10.2	9.5	12.9
	여행 지리	42.9	84.4	14.3	8.2	6.8
과학	사회문제 탐구	51.0	96.6	15.0	13.6	17.7
	고전과 윤리	68.7	66.0	10.9	11.6	26.5
	물리학II	0.0	0.0	83.0	92.5	50.3
	화학II	0.0	0.0	93.2	85.0	87.8
	생명과학II	0.0	0.0	90.5	74.1	93.2
	지구과학II	1.4	2.0	89.1	65.3	34.0
	과학사	22.4	29.3	69.4	44.9	36.7
	생활과 과학	39.5	44.2	55.1	45.6	41.5
융합과학	14.3	14.3	72.1	74.8	58.5	

고등학교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인문계열의 경우 제시된 과목 중 국어와 영어 교과목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수학과 과학 교과목은 일부 과목만 이수가 필요하다는 응답 결과를 보였다. 사회 교과목의 경우에는 사회문제 탐구와 고전과 윤리 과목에 대한 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계열은 인문계열과는 달리 경제수학이 매우 필요(83.0%)하다고 인식된 데 반해 국어 교과목은 심화 국어 한 과목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영미 문학 읽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회 관련 과목은 3과목 모두 이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수학은 기하와 수학과제탐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나타났으며, 과학의 경우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목이 모두 필요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과학II 과목의 경우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서 네 과목 모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는 두 계열의 전공의 범위가 넓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융합과학은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모두 필요하나 과학사와 생활과 과학은 자연계열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의 경우 수학에서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과 같이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과학에서는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각 계열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와 70%를 넘는 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희망계열별 진로선택과목 : 필요성이 50%와 70% 이상인 과목: 고등학교 교사

계열	필요성이 50% 이상인 과목들	필요성이 70% 이상인 과목들
인문계열	실용 국어, 실용 영어, 진로 영어,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영어권 문화, 영미 문학 읽기
사회계열	심화 국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고전과 윤리	경제 수학, 여행 지리, 사회문제 탐구
자연계열	과학사, 생활과 과학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융합과학
공학계열	지구과학II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융합과학
의학계열	기하, 수학과제 탐구, 물리학II, 융합과학	화학II, 생명과학II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 중 계열, 단과대학, 학과 등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게 과목별로 평가에 반영하는 적절한 범주에 대한 질문에 진로선택과목 대입 평가 시에는 과목에 따라 계열별 또는 계열별+지원학과별(자연계) 혼합 방식을 선호하였다. 계열이나 학과 등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모든 과목에서 계열/학과 구분없이 평가하되,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기하나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의 경우 계열별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의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대입 평가 시 지원학과나 단과대학별로 좁게 해석하기 보다는 계열별 또는 계열별+지원학과별(자연계만)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진로선택과목 대입평가 시 적정 반영 범주_대학 입학사정관

평가방식	진로선택과목 대입 평가 시 적정 반영 범주	빈도 (중복포함)	빈도 (단독의견)
방안 1	지원학과별(국문, 사학, 경영, 언론, 물리 등)	5	1
방안 2	단과대학별(문과대, 이과대, 의과대, 경영대 등)	1	-
방안 3	계열별(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술 등)	9	3
방안 4	계열별+지원학과별(인문-계열별, 자연-지원학과별 등)	8	4
방안 5	구분 필요 없음	9	2

대입전형 평가를 고려한 학생의 진로선택과목 이수 적정 범주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모두 지원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지정되어 있다기보다 계열별 특성을 반영해 계열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몇 과목 정도 더 있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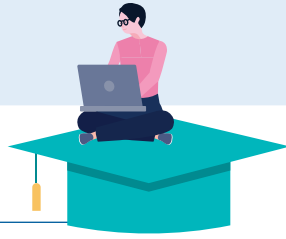
02 진로선택과목의 정량평가 활용 방안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실시에 따라 진로선택과목과 일부 교과목의 입학연도별 학업성적 산출방식이 다르며,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진로선택과목에서 표준편차와 석차등급까지 제공되지만, 2019학년도 입학생(2022학년도 대입전형 응시)의 경우에는 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하는 자료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에서도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의 석차등급은 학교 자율에 따라 1~9등급 산출하거나 방점(·)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진로선택과목 학업성적 처리방식 비교(2018학년도 vs 2019학년도 이후)

구 분		2018학년도 입학생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원점수	○	○
	과목평균	○	○
	표준편차	○	×
	성취도별 분포비율	×	○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도	3단계	3단계
	수강자수	○	○
석차등급		○	×

기존의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 활용한 교과영역 성적 산출방법에서는 9등급의 석차등급을 가장 중요한 학업정보로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반영하였다. 대학에 따라서는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한 Z 점수를 반영하거나, 교과의 학년별 반영비율이나 이수단위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이후부터는 진로선택과목의 경우에도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제공하지 않기로 확정되면서 각 대학은 진로선택과목에 제공되는 각종 성적 자료를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진로선택과목은 기본적으로 3개 과목 이상 개설하기 때문에 전체 과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나 주요 대학들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일부 과목들이 있어 정량평가의 경우에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자연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과학II 교과목이나 수학교과 중 기하 등의 과목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를 원한다면 2022학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에서는 새로운 학생부 학업성적 산출방법을 공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가. 학업성적을 활용한 성적 산출 방안

1) 진로선택과목 정량평가 성적 산출 방안

진로선택과목의 정량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에 제공되었던 석차등급과 표준편차 자료 없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여 학생 간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2019학년도 고교 입학자 학생부에 기재되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 수강자수를 활용하여 정량평가 성적을 산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9. 진로선택과목 정량화 방안

구 분	반영 방법
방안 1	성취도(A-B-C)별 단순 차등점수 부여
방안 2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반영
방안 3	원점수 등급화 반영
방안 4	원점수와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를 활용한 점수화 반영
방안 5	지원자격 부여 또는 가산점 부여
방안 6	진로선택과목 미반영

■ 성취도별 단순 차등점수 부여

방안 1은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A-B-C) 3단계로 단순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에 의한 상대평가 점수로 반영하고, 진로 선택과목은 성취평가별 점수(A-B-C)를 환산식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이다. 학생별 진로선택과목 수강 과목수가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가산점 방식으로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각 과목별 환산하고 합산한 다음 전체 반영교과목 수로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성취도별 단순 차등점수 부여 반영 방법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1	(환산식) 성취도 A(10점), 성취도 B(9.8점), 성취도 C(9.6점) 환산 - 총점은 '과목별 성취점수의 합 / 전체 반영교과목 수' 로 반영
	(환산식) 진로선택과목 전체 이수과목 중 성취도A의 비율×가산점 (예 시) - A성취도 과목 비율 1.0(100%)×가산점 3점=3.0점 - A성취도 과목 비율 0.80(80%)×가산점 3점=2.4점

1안에서 성취도 점수만 반영할 경우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업성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의 충실한 수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진로선택과목 도입 취지와 맞닿아 있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은 최소 3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최대 5~8과목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자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의 성적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성취도 간 등급 차를 크게 부여할수록 환산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적절한 점수 부여가 필요하다. 학업성취 정보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복잡하게 제시할 경우 지원자의 점수 유희리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그렇지만 성취평가제를 통해 제시하는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성취도 A에 만점을 부여할 경우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고교 현장의 점수 부여 체계가 왜곡되어 다수 학생들이 A를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노력으로 개선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입장에서는 성취도가 3단계에 불과하고 특히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지원자 다수가 만점을 받을 수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단점이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의 충실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관점과 달리 실질적인 반영비율 축소로 오히려 학업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상반되는 견해이다. 또한, 절대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성취평가제의 취지를 무시하는 점수 체계로서 절대평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환산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훼손한다는 견해도 있다.

표 11. 성취도별 점수 부여_대학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	성취도별 점수 부여
긍정적 의견	• 성적반영 방식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편함.
	•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높아짐.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업역량 평가 가능함.
	• 대학 자체 계산법에 의해 가공하지 않고 단순 점수화하는 것이 성취평가제 취지에 부합함. • 진로선택과목 선택 부담 완화, 자유로운 교과 선택권 보장 가능함.
부정적 의견	• 원점수, 평균점수, 등급별 분포 등의 정보를 간과하여 정량평가 목표에 적합하지 않음.
	• 학교별, 학과별 성취 비율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일부 학교에 유리할 가능성 있음.
	• 다수 학생들이 A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학생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 있음.
	• 성취도가 3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짐.
	• 진로선택과목의 실질적인 반영비율 축소 예상됨. • N수생 반영 기준 별도 마련 필요함.

■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반영

방안 2는 교과별 성취도와 함께 진로선택과목에 한해 제공되는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아래 반영방법을 예시로 들자면, A-B-C 성취도별 기본 점수를 3, 2, 1점으로 부여하고 성취도별 누적 비율과 단위수를 곱하여 점수화하는 방법이다. 또는 성취도와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가산점 형태로 부여하지 않고 석차등급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표 12.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반영 방법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2	(환산식) 성취도(3/2/1점)×단위수×(1-성취도 비율)
	(예 시) A성취도, A성취도 비율 20% A성취도(3점)×단위수(3점)×(1-0.2)=7.2점
	A성취도, A성취도 비율 40% A성취도(3점)×단위수(3점)×(1-0.4)=5.4점
	A성취도, A성취도 비율 60% A성취도(3점)×단위수(3점)×(1-0.6)=3.6점

방안 2는 성취도 점수만 반영하는 방안 1에서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반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수준과 노력 등을 세분화해서 평가에 반영하여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의 절대적인 성취도와 더불어 상대적인 위치 파악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대학 입장에서 진로선택과목을 적절히 반영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고교 교사 대상 설문과 면접 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이다.

방안 2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선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동일하게 상대평가 형태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진로선택과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상대평가처럼 간주될 수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학습 수준, 교과별 성취점수 분포에 따라 성취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수학생이 많이 몰려있어 A성취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동일 학교 내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상대적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성취도 A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 성취도의 비율에 따라 큰 폭의 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표준편차를 대신하여 제공된 성취도별 비율 정보는 정성평가에 적절하고 정량평가에 적용하기에는 인위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표 13.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_대학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	성취도별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활용한 점수화
긍정적 의견	• 학교별 평가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유불리를 최소화하여 반영할 수 있음.
	• 다른 안에 비해 조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학생 간 변별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임.
	• A등급의 과도한 부풀리기 방지에 효과적임.
	• 학생부 기재 교과 관련 모든 정보를 충실하고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음.
	•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 파악과 절대적인 성취수준을 모두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음.
부정적 의견	• 학생 과목 선택권과 이수 부담 증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 훼손 우려됨.
	• 학생 개인의 성취도보다 수강생 수준 등 다른 변수에 의해 교과 성적 산출 가능성이 높음.
	• 성취수준 비율 적용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동일 학업능력 학생이 A집단 40%, 20%에 따라 학생의 편차가 너무 커짐)
	• 성취수준의 비율이 높고 낮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영할 경우 평가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교과성적 산출이 복잡하여 수험생의 유불리 가능성이 어려움.
	• 성취비율 반영에 따라 유불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고교 측의 부담이 증가함.



■ 원점수 등급화 반영

방안 3은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활용하지 않고 원점수만으로 등급화 또는 점수화를 하는 방안이다. 등급화의 경우 원점수를 일정 기준을 통해 일반선택과목의 9등급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선택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현행 9등급 체계의 등급 분포(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등)에 따라 원점수를 등급점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있으며, 인위적으로 원점수를 10점 단위로 나누는 고정분할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점수화 방안은 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되 원점수의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진로선택과목은 별도의 가산점 형태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표 14. 원점수 등급화 반영 방법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3	(환산식) 원점수 별 등급 또는 점수 부여 (예 시1)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60점 미만 5등급
	(예 시2) 96점 이상 1등급, 89점 이상 2등급, 77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60점 미만 5등급
	(예 시3) 90점 이상 10점, 80점 이상 9.5점, 70점 이상 9점, 60점 이상 8점, 60점 미만 7점(전체 점수 합산 / 과목수)

방안 3은 기존의 일반선택과목의 9등급제와 혼용이 가능하고 점수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진로선택과목 점수의 학생별 편차가 크지 않아 성적 산출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는 방식이다. 과목별 평균점이 다른 분포를 가진 원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급화하여 반영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교과별 출제 난도를 높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점수를 받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난이도가 낮아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앞서와 마찬가지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생부에서 제공하는 성취도 등급은 활용하지 않은 채 원점수를 굳이 등급화 할 이유가 없으며, 등급화의 기준 설정도 반박하고 인위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결과적으로는 원점수 부풀리기 현상을 통해 점수 왜곡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성취평가제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부여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점수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경우 자칫 진로선택과목 평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교사 대상 설문조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델파이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표 15. 원점수 등급화 반영_대학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	원점수의 등급화 반영
긍정적 의견	• 성취도별(A-B-C) 점수 부여보다 지원자별 세분화된 변별력 확보 가능함.
	•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학생, 고교 예측가능성 상승 및 혼란 최소화됨.
	• 기존 일반선택과목의 9등급제와 혼용하여 사용 가능, N수생 성적도 점수화 가능함.
	• 진로선택과목의 학습부담 완화, 성취평가제 취지에 부합함.
부정적 의견	• 원점수 부풀리기 현상 발생 가능성에 따른 점수 왜곡 가능함.
	• 과목별 평균점이 다른 분포를 가진 원점수를 반영하는 데에 따른 통계학적 문제가 발생함.
	• 학생별로 동일한 난이도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점수를 학업역량으로 보기 어려움.
	• 이미 성취도라는 3단계 기준이 존재하는데 굳이 원점수를 등급화할 필요가 없음.
	• 교과별 위계와 상관없는 교과 반영비율이 과목 위계 높은 과목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됨.
	• 진로선택교과 평가의 질적 하락 예상됨.
• 상대 등급인 N수생과의 형평성 문제(N수생 불리)가 발생함.	

■ 원점수와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비율)을 활용한 점수화 반영

방안 4는 원점수와 함께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를 활용한 점수화 반영 방법이다.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의 절대적 위치(원점수, 성취도)와 상대적 위치(과목평균 점수, 성취비율)를 최대한 활용하여 반영하는 방식이다.

표 16. 원점수,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비율) 활용 점수화 반영 방법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4	(환산식) $성취도(3/2/1) \times (원점수/평균) \times 단위수$
	(예 시) A성취도(3점) \times (원점수 100/평균 90) \times 단위수(3점)=10.0점
	A성취도(3점) \times (원점수 100/평균 70) \times 단위수(3점)=12.9점
	A성취도(3점) \times (원점수 100/평균 50) \times 단위수(3점)=18.0점
	A성취도(3점) \times (원점수 90/평균 90) \times 단위수(3점)=9.0점
	A성취도(3점) \times (원점수 90/평균 70) \times 단위수(3점)=11.6점
	A성취도(3점) \times (원점수 90/평균 50) \times 단위수(3점)=16.2점

방안 4은 학생부에 제시된 학업성취 관련 기본 정보의 충실한 반영으로 표준편차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밀한 평가를 시도한 방식이다. 원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평균점수가 높아질 경우 동일한 원점수와 대비해서 불리해진다는 점에서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표준편차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점수를 평균으로 나눌 때 성취수준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원점수와 평균점수의 차이가 클수록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비슷한 학업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 및 과목일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방식이며, 원점수와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도하게 큰 점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성취도 비율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은 경우 성취도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큰 차이점은 없다고 판단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동일 학교의 학생 간 학업 능력에 차이가 클 경우 일부 우수한 학생에게 점수를 몰아 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따라 절대평가를 통해 산출한 점수를 환산 점수를 통해 반영할 경우 본래 평가한 절대점수의 의미를 훼손하고 지원자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표 17. 원점수와 과목평균 활용_대학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	원점수와 평균 점수를 활용한 점수화
긍정적 의견	· 학생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정량평가 취지의 기본 목적 달성에 유리함.
	· 학생의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성취 모두 반영 가능하여 교과성적 변별력 확보할 수 있음.
	· 학생부에 제시된 성적 관련 기본 정보의 충실한 반영으로 세밀한 평가 가능하며,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함.
	· 동점자가 적어질 수 있으며, N수생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함.
부정적 의견	·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성취평가의 도입의 취지(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방안임.
	· 수식이 복잡하여 학생별 유리 판단이 어렵고 합불 여부 가늠이 어려울 수 있음.
	· 대학별로 다른 수식을 각기 활용할 경우 고교의 불확실성과 부담감이 커짐.
	· 진로선택과목의 비중이 일반선택 과목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표준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점수/평균만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음.
	· 동일 원점수라도 우수 동질집단 학생이 이질적 집단의 학생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됨 (최대점수 한계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
· 이수단위와 성취도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점수가 평균점수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학생들, 즉 일반고 상위권 학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음.	

■ 진로선택과목의 지원자격 부여 또는 가산점

방안 5는 진로선택과목을 일정 이수단위를 이수했을 때 지원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 때 진로선택과목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 과목이나 이수단위를 이수했을 때 만점을 부여하거나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모집단위마다 지정된 교과별 진로선택과목을 일정 이상 이수하면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전체 진로선택과목 이수과목 중 성취도 A의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가산점 부여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표 18. 진로선택과목의 지원자격화 또는 가산점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5	(예 시) 진로선택과목 4과목(12단위) 이상 이수 시 지원 가능(또는 가산점 부여) 모집단위 지정 교과별 진로선택과목 일정 과목 이수 시 지원 가능(또는 가산점 부여) · 인문계열: 진로선택 사회 2과목 이상, · 자연계열: 진로선택 수학 1과목, 과학 2과목 이상 등

이 방안은 복잡한 교과성적 반영방법을 도입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이상 과목을 이수할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거나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과목 이수 자체로 지원자격을 부여한다면 쉬운 선택과목만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문·자연계열의 모집단위별 진로선택과목의 교과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모집단위 계열 학습에 필요한 기본 교과를 충실히 이수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3학년 때 주로 편성되는 진로선택과목이 학업성취도 반영 없이 지원자격 형태로 반영된다면 학업 성취에 대한 노력보다는 과목 이수에 초점을 맞춰 수업 내용이 부실 운영되거나 참여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모집단위 별 교과 영역을 지정할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미개설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진로선택과목은 기본적으로 3과목 이상 이수하기 때문에 이수 자체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 변별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진로선택과목 미반영

마지막 방식은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만 석차등급을 활용하여 학업성취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의 학업성취 영역인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정량적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학업성취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진로선택과목은 지원자의 전공과 연결하여 정성적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성취평가제의 취지와 연계된다는 측면의 접근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은 최소 3과목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어 전체 과목 대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칫 검증되지 않은 점수 환산 방법을 활용할 경우 고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진로선택과목의 대입전형 미반영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이다.

반면 진로선택과목을 대입전형에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되면 고교에서 진로선택과목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며, 진로 과목 선택 과정이 불성실해지거나 고교 수업 현상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진로선택과목을 대입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 진로선택과목 정량평가 성적 산출 방안 선택 시 고려 사항

학생부교과전형의 이상적인 학업성취 산출방안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통한 정량평가를 활용하고, 진로선택과목은 과목 선택과 이수 현황 등을 통해 정성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다수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만으로도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학생부교과전형과 같은 정량평가 기본 전형에서 정성평가에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의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라 교과성적 위주의 지역인재전형을 모집정원의 10% 이상 선발하기로 결정하면 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적 산출 방안을 마련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된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고교의 교육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학습과정과 결과를 타당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대학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로선택과목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각종 정보(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가 학

생들의 학업성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적합한 도구인지, 산출식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방향이나 교과목별 수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전형 지원 시점에서 지원 및 합격 가능 여부를 가능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반영 방법이 학생의 선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충분한 변별은 가능한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동일한 교과목이지만 서로 다른 평가방식으로 나뉘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Q1. 진로선택과목 도입 취지 및 성취평가제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가?

Q2. 성취평가제를 위한 학업성취 관련 정보를 적절한 용도로 활용하는가?

Q3.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Q4. 학생부 교과영역 산출방안의 복잡성으로 지원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가?

Q5. 진로선택과목 자율 선택과 수업 활성화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Q6. 학생 학업성취도의 적절한 변별이 가능한가?

Q7. 진로선택과목 개설 현황 차이나 기타 학교별 격차를 고려하였는가?

Q8. 다른 교육과정 이수자(N수생 등) 및 진로선택과목 미이수자의 학업성취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나. 교과영역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1) 반영 교과 및 과목

■ 진로선택과목 교과목 반영 범위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범위는 첫째,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할 것인지, 성적이 좋은 일부 과목만 반영할 것인지, 둘째, 모집단위별 교과(군)을 지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반영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 19. 진로선택과목 교과목 반영 범위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1	진로선택과목 전체 반영
방안 2	진로선택과목 중 성적이 좋은 일부 과목만 반영
방안 3	모집단위별 교과(군)을 지정하여 과목 전체 반영
방안 4	모집단위별 교과(군)을 지정하여 성적이 좋은 일부 과목만 반영

첫째, 진로선택과목 중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은 평가에 배제되는 과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한 과목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진로선택과목은 일반고와 자율고에서는 최소 3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3학년 2학기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4~7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으로 본다면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성적이 좋은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것처럼 동일한 숫자의 과목만 반영할 경우 교과 성적 산출의 표준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산출방식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학교 여건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이수과목 수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따라서는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몇 과목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의 입학전형 설계가 고교 현장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부 과목반영은 평균적인 교과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지원자 본인의 교과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지원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부 성적이 높은 과목에 한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로선택과목도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별 진로선택과목 이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 과목 반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모집단위별 교과(군)을 지정하는 방식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에도 모집단위의 전공적합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고,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희망전공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로 학업역량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반면, 대학의 선택이 학생의 교과 선택권에 개입하여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재학 중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학생의 경우 과목 선택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모집단위별/계열별로 일일이 교과(군)을 지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동일/유사한 모집단위 일지라도 대학별로 지정 교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장단점을 각각 판단하여 4가지 조합 중 각 대학의 여건과 학생 선발 전략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통교과 구분별 반영 비율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교과(군)는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기초와 탐구 교과영역은 과목별로 기본(수학, 영어), 일반, 심화 과목으로 구분되었고,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에서는 기초, 탐구 영역 5개 과목 중 석차등급 산출이 가능한 교과목을 일반, 심화과목 구분 없이 전체를 반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의 경우 교과 영역별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통 과목은 각 교과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과목이며, 일반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며, 진로선택과목은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 학습이 가능한 과목이다. 따라서, 공통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해야 한다. 일반선택교과와 진로선택과목에서는 [과학 I → II], [한문 I → II], [제2외국어 I → II], [수학 I → 경제수학], [수학 I · II → 미적분]순으로 과목의 위계를 따라야 하며, 나머지 과목은 전적으로 위계에 따른 구분은 아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의 구분별 편제를 이해하고 반영비율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부 정량평가 산출 방식에서 보통교과 구분별로 반영하는 방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방법과 선택과목 내에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는 보통교과에서는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표 20. 보통교과 구분별 반영 비율

구 분	반영 방법 (예시)
방안 1	공통과목과 (일반/진로)선택과목을 차등 반영
방안 2	공통과목과 (일반/진로)선택과목을 동등하게 반영
방안 3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차등 반영
방안 4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동등하게 반영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개설되는 기초 교과로서 총 7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일반선택과목은 2학년 이후 개설되며 공통과목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각각 교과 구분별로 이수 과목수는 대체로 일반선택과목 > 공통과목 > 진로선택과목의 순으로 많이 이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이수 과목수나 단위수와 상관없이 별도의 반영 비율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방안 1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차등 반영하는 방안이다. 공통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계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초적인 과목이 핵심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일반선택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공통 과목보다는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이 되는 과목을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방안 2의 경우에는 과목과 상관없이 석차등급이 제공되는 과목에 한해 학업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방안 1과 2는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이 뚜렷하다기보다는 대학의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차등 반영 의견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며, 차등 반영할 경우 선택과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안 3과 4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반영 비율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선택과목은 진로선택과목에 비해 대체로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편성하여 전 학년에 동일하게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일반선택과목을 높은 비율로 반영한다는 것은 실제 이수 과목수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 점수 부여의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진로선택과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과목에 대한 반영 비중을 높이고 희망 전공과 관련이 높은 과목을 비중 있게 반영하겠다는 측면을 드러낸다. 교사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이 진로선택과목에 비해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선택과목의 비중이 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모집단위별 반영 교과 및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상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학생의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입전형에서 희망 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다.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견해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일정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로선택과목은 현재 국어교과 3과목, 수학교과 4과목, 영어교과 4과목, 사회교과 3과목, 과학교과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에서는 계열별/학과별 적합한 교과와 과목을 명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활용 가능하다. 선택한 과목의 이수과 과목 위계, 학업성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공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에서는 모집단위에 따라 반영 교과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교과 내 각기 다른 진로선택과목 교과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생부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교과목 성적 반영을 위해 지원 모집단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교과목 반영을 위한 지원 모집단위 구분

구 분	교과목 반영을 위한 지원 모집단위 구분
방안 1	인문/자연/예체능 계열별
방안 2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반영
방안 3	계열별(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술 등)
방안 4	지원학과별(국문, 사학, 경영, 언론, 물리 등)
방안 5	단과대학별(문과대, 이과대, 의과대, 경영대 등)

방안 1은 인문, 자연, 예체능의 3가지 계열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에 반영할 교과(군)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많은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현재 활용하여 매우 익숙한 구분이다.

방안 2는 계열별, 학과별 구분 없이 모든 학과에서 모든 교과(군)를 정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통합과목과 선택과목을 골고루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계열 구분에 따른 유불리 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교의 최우수 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방안 3은 모집단위 범위를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학 등으로 세부 계열로 구분하여 교과(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반영하는 교과(군)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방안 1을 활용하는 것이 덜 복잡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방안 4는 지원학과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과정에서 학과별로 진로선택과목을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대학 내 전형 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전형 안내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약점이 있다.

방안 5는 단과대학별로 교과목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범대학과 같이 동일한 단과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계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안 1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대학에 따라서는 방안 2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집단위를 인문/자연/예체능 계열로 분류하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진로선택과목의 과목별 반영보다는 교과(군)별 구분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만약 공학계열 모집단위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한다면, 기초 교과영역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교과를,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과목의 진로선택과목인 심화국어, 고전 읽기 교과는 정량평가에 반영하고, 실용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진로선택과목은 개인별 최소 3과목 이수 기준이며, 평균적으로 4~5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교과(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선택과목수가 2개 이상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의 경우 교과(군)에 속한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반영하고 진로선택과목의 과목은 세세하게 구분하여 반영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표 22. 계열별 정량평가 교과 반영 범위

평가 방식	진로선택과목 계열별 정량평가 반영 방식(예시)		
방안 1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내 진로선택과목 이수과목 전체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체능계열	국어, (수학), 영어	
방안 2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학년별 반영 비율 및 이수단위 반영

■ 학년별 반영 비율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의 경우 학년별 반영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방안 1)과 학년별 반영비율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방안 2)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학년별 가중치 적용 방식을 대체로 활용하였다. 방안 1과 같이 학년별 가중치를 활용하는 대학에서는 대학 입학 시점에서 가까운 3학년 과정의 교과 성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1학년의 경우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성적에 많은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3학년 교과목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원자 중에서도 현 시점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함께 저학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고학년 시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합격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부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교과 성적의 정량평가 시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1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과목과 일부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2학년에는 일반선택과목 위주, 3학년에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순서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학년도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아 대학별로 새로운 성적 처리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선택과목의 비중이 많은 3학년 과정의 학년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1~3학년 모두 석차등급을 활용하는 교과목의 숫자가 거의 동일한 경우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 적절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학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도 72.8%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3. 학년별 반영 비율

평가 방식	교과목 반영을 위한 지원 모집단위 구분
방안 1	(예시) 학년별 반영 비율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1학년 20% + 2학년 40% + 3학년 40% • 조기졸업자 : 1학년 40% + 2학년 60%
방안 2	학년별 반영 비율 없음

■ 이수단위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취도 정량평가에서 이수단위는 다음의 몇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보통교과와 일반선택교과의 교과점수 산출방법에 활용된다. 대체적으로 교과전형에서는 이수단위를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식을 달리 적용한다. 이수단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석차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총 이수단위]와 같은 가중평가 방식을 활용하며, 이수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별 석차등급점수의 합/총 반영교과 수]로 간단히 반영한다. 이수단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별 이수단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형 운영의 측면에서는 수월하고 점수 계산에 있어서도 직관적이다.



그렇지만 이수단위를 반영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과목이 상대적으로 높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를테면 이수단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1단위 교과 1등급, 4단위 교과 2등급] 학생에 비해 [1단위 교과 3등급, 4단위 교과 1등급]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다음으로 교과선택과목을 정량평가 계산 방식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각종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등을 활용하여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경우 각 과목별 계산식에 이수단위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각 과목별 산출식에 이수단위를 곱할 경우 과목별 이수단위 수가 높은 과목의 점수가 가산되는 형식이다. 과목 이수단위는 학생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수단위의 반영에 따른 유불리는 학교의 이수단위 분배 방식에 따라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을 정량적 수식화하지 않고 지원자격이나 가산점 형태로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때는 최소 몇 단위 이상 이수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모집단위에서 전공적합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미리 공지한 교과(군) 영역 내의 진로선택과목을 일정 부분 이상 이수를 해야 필수 지원자격이 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각 학년도별로 지원 시 특정 교과에서 일정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교과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과목 수만 반영하지만 이수단위 수 형태로 변경하여 반영할 수도 있다. 진로선택과목은 기본적으로 5단위 편성 교과이지만 3단위 내에서 유연하게 편성 가능하여 학교 자율로 2~8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과목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진로선택과목의 최소한의 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수단위 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표 24. 이수단위 반영 방안

구 분	이수단위 반영 방안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안 1 : 이수단위 수식 활용 • 방안 2 : 이수단위 수식 미활용
진로선택과목의 정량평가 반영수식의 이수단위 활용	(예시) • A성취도, A성취도 비율 20%, 이수단위 3 • A성취도(3점) × 이수단위 수(3점) × (1-0.2) = 7.2점
진로선택과목의 지원자격 및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모집단위의 전공적합성 평가를 위해 특정 교과(군)의 교과목 이수의 최소 이수단위 수 설정 (예시) 자연계열 모집단위 진로선택과목 12단위 이상 이수 시 지원자격 또는 가산점 부여

진로선택과목의 이수단위 수를 대입전형에서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로선택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이수한 단위수가 많아야 우수한 학교, 우수한 학생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교에서 진로선택과목을 편성하는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진로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목에 비해 상위 위계 개념의 과목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자칫 각 학교는 진로선택과목수, 이수단위수 늘리기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교과목 선택과 별개로 기본적인 학습 활동을 충실히 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각 대학의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수단위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과목이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는 인식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과별 이수단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졸업시기에 따른 성적 반영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고교 입학자부터 적용되었지만 새로운 학업성적 산출방식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자부터 적용되었다. 따라서, 2022학년도 학생부 성적산출방식을 2019학년도 고교 입학자를 기준으로 마련할 경우에 산출 방안에는 전년도 졸업생을 포함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정량평가 6가지 방안이 N수생들에게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고 지원자격 확대 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표 25. 진로선택과목 정량화 방안별 N수생 적용 가능 여부

구 분	반영 자료					N수생 적용 가능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교육 과정	2017년 이전 입학자	-	미제공	미제공			
	2018년 고교 입학	○	제공	미제공	제공	제공	
	2019년 고교 입학	○	제공	제공			
방안	방안1	성취도 단순 차등	✓			2018: 가능 2017: 불가	
	방안2	성취도, 분포비율 반영	✓	✓		불 가	
	방안3	원점수 활용			✓	가 능	
	방안4	4가지 조합 반영	(✓)		✓	✓	2018: 가능 2017: 불가
	방안5	지원자격, 가산점	✓				2018: 가능 2017: 불가
	방안6	미반영					-

방안 1(성취도 점수 활용)의 경우에 성취도 점수만을 반영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첫 해인 2018학년도 입학생(N수생)의 성취도 점수가 대학에 제공되면 문제가 없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대상인 3수생 이상 졸업자의 경우 성취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방안 2(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활용)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당시 고교 졸업생에게는 모두 적용이 불가하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제공되는 정보이며,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임의로 환산해서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방안 3(원점수 활용)은 원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이 방안이 대학입시에 활용될 경우 고교의 원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존의 N수생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방안 4(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는 원점수와 과목평균은 제공되지만 성취도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적용이 불가하다. 다만 원점수와 과목평균 점수만을 활용한 방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방안이다.

방안 5(가산점, 지원자격)는 진로선택과목에 가산점이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인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체계가 없어 가산점과 지원자격을 활용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방안 6과 같이 진로선택과목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방안의 경우에도 연도별 석차등급 제공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물리학I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진로선택 과목이지만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은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고, 2018학년도 입학생에게는 제공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졸업연도에 따라서 물리학I 과목의 석차등급 정보가 제공되는데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제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석차등급이 제공되는 과목은 예외로 하고 정량화 점수 산출에 포함할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원자격을 2022학년도 고교 졸업생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자격을 확대한다면 N수생에게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성적 정량평가 방안은 원점수를 활용하는 방안 3만 해당되며, 재수생까지 적용 가능한 방안은 방안 1과 방안 5까지 포함된다. 방안 4에서 성취도 점수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전체 가능한 방안이다. 이와 같이 정량평가 방안을 도입한다면 N수생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자격 제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졸업시기에 따라 점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할 경우에는 기 졸업자들을 2022학년도 이후 졸업자 기준에 맞게 동등화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III. 연구 요약 및 함의



Ⅲ. 연구 요약 및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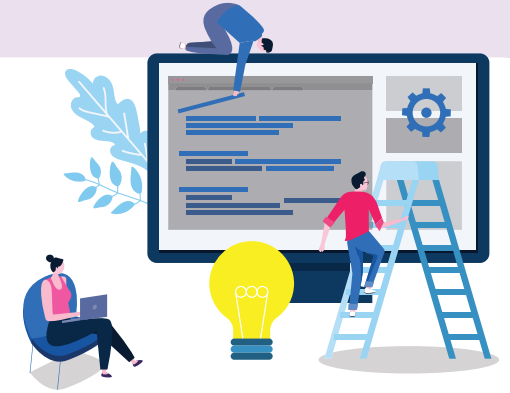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진로선택과목의 대입전형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확대와 진로선택과목의 성적처리 방식 변경[성취도(A-B-C) 도입]에 따라 학생은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고, 대학이 대입 전형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는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고등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와 그 외의 학교 간에 선택 과목 개설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이 학생의 선택 과목 평가 활용 시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통해 학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진로선택과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은 학생의 선택과목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되, 학생의 입시부담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칫 변별력 문제로 진로선택과목을 대입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면 진로선택과목이 위축되고 고3 수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등 정량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평가에 모두 활용하되, 학생의 입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게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이수 이력을 살피고, 선택하게 된 동기, 지원 학과(계열) 관련 과목의 성취도, 수업 내용 및 학습 태도, 이에 대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로선택과목에는 석차등급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전보다는 수업 활동과 태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보다 중요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진로선택과목 이수 과목수와 과목 선택 이력(경로), 과목 별 위계(난이도와 수준), 심화과목(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 여부의 영향력은 석차등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같이 학생을 이해하는 여러 평가요소 중 하나 정도로 반영할 것이다.

학생의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등을 평가하겠지만, 계열별 특성을 반영해 교과별로 몇 과목 정도만 더 수강한다면, 평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 여부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자발적 의지'와 '주도적 선택'에 따라 학생이 과목을 이수함에 따라 대학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 지원 학과(계열) 관련 진로와 적성 등을 파악할 기회가 그만큼 늘어났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사 모두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선택 과목에 대해서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학과나 단과대학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다고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자연/공학/의학 등 계열별 또는 계열별+지원학과(자연계)로 일부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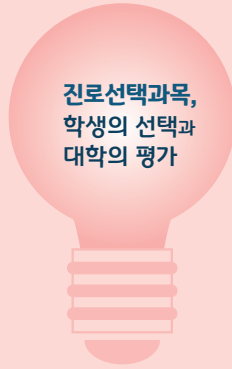
예컨대 인문/사회계열은 국어와 사회과목을 더 수강하고, 자연/공학/의학은 수학과 과학과목을 더 수강하고, 영어는 공통적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더 이수하면서 지원학과에 맞는 과학II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 못지않게 학생부 교과(내신) 전형에서도 진로선택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고등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교과 전형에서는 성적 처리 공식과 반영 점수가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대학별로 학생의 수험 준비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수도권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으로 교과성적 위주 전형을 10% 이상 선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진로선택과목의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식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성취도(A-B-C)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원점수와 평균, 성취비율 등을 활용해 대학이 공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대학은 지원자의 특성, 경쟁률, 고교 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맞는 반영 공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일부 과목이라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 자연계열은 과학II가 진로선택과목에 포함되어 대체로 고교에서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2~3과목이 더 많이 개설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은 새롭게 도입된 진로선택과목을 대입전형에 활용 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대입의 변별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활용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게 진로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과 입시부담 완화의 황금비율을 찾아줘야 할 숙제가 주어졌다. 정부의 계획대로 고교학점제 시범사업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고교에 성취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고 2028학년도 대입전형에 반영되면, 지금보다 학생의 선택과목 평가는 더 중요해지거나 새로운 평가 방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대학은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입제도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반을 잘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진로선택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경희대	임진택
공동연구진	건국대	이정림 김유겸
	경희대	공자원
	연세대	박정선 한정호
	중앙대	차정민 임태원
	한국외대	이석록 김창민

발행일 2020. 1.

발행처 경희대학교

문 의 1544-2828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

• 제작 _ 디자인여름 (02-421-1452)



1. 인용하실 때는 꼭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교육업체의 무단사용을 절대 금합니다.